

화합과 도약, 위대한 울산

지리적으로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울산은, 한국 공업생산의 12.2%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공업의 요람이며, 항만, 공항, 도로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근 포항, 부산, 창원과 함께 지역 테크노벨트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환태평양권역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권과 교류되고 있는 국제적인 중심 도시이다.

1. 울산광역시의 산업구조

태화강이 조성한 비옥한 토지와 울산만에 연이어 있는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 그리고 이들 항구의 내안 구릉지에 형성된 약 627km²(1,900만 평)의 공업용지는 공업도시 울산의 기틀이 되어 왔다.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결정되면서 정유·비료·자동차·조선 등의 공업이 입지하여, 기간산업 기지로 급속히 변모함에 따라 1차 산업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2·3차 산업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특히 공업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02년에는 1차산업이 3.1%에 불과한 반면 2차와 3차 산업이 각각 39.1%, 57.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로는 온산과 울산 미포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매곡 지방산업단지, 모듈화단지, 신산업단지 등 3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은 화학과 기계공업이 중심을 이루는 약 894개의 기업체가 장생포, 염포, 미포, 온산 등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지해 있다. 장생포지구에는 대규모 정유, 비료, 화학, 석유화학 등의 공업이 집중해 있고, 염포 및 미포 지구에는 현대그룹 계열의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 및 관련 공장 등 500여 개의 기업체가 집중해 있다.

2차산업이 발달된 공업도시 울산 산업현장에서는 금년 6월 현재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근로자수가 1,857명으로 재해율이 0.60이다. 이는 전국 평균 재해율 0.45보다 높은 것으로 공업도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울산도 산업현장에 대한 재해에 방대책이 시급하다.



2.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을 찾아서

통합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주)현대미포조선

울산하면 생각나는 단어 2개가 있다. 자동차와 조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조선을 대표하는 기업 (주)현대미포조선을 찾았다.

선박건조 및 수리로 세계 1위 자리에 위치한 (주)현대미포조선은 2000년부터 업무의 다변화를 피하면서 특수선박 건조에 주력하였고, 세계적인 조선소로의 명성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주)현대미포조선은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2001년도 8월부터 새롭게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선항안전 제도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중 차장을 만났다.

“안전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을 충실해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김영중 차장은 “안전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킬 때 사업장의 무재해는 이룩된다.”고 늘 강조한다.

추락, 전도, 협착 등 재래형 재해 위험이 많은 조선소 특성상 이곳에서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킬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김영중 차장으로부터 (주)현대미포조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중점 사항을 들어봤다. 먼저 국제통합경영시스템 도입이다. 최근에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안전보건 경영분야에 있어 국내 최초로 국제통합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것인데, 이는 기존에 환경, 품질, 안전보건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각각 따로 인증받은 것을 재정비하여 통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밖에 교통질서, 흡연질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초질서 지키기와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 활동을 강화하고, 선항안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경영층 안전보건 활동과 전도·협착·추락 등 3대 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영중 차장은 작업장에서 사고에 의한 재해보다 직업관련성 질환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혼혈의 힘을 쏟는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개인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체조를 자체 개발하여 보급·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안전보건에 있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주)현대미포조선은 안전에 있어 노사가 따로 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무재해 구현을 위해 매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중 차장은 안전은 노사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안전은 안전일 뿐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은 노사가 함께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 김영중 차장

하프로 절대로 안전을 가지고 노사협상 테이블에 내놓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주)현대미포조선이야 말로 노사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김영중 차장은 자부한다.

끝으로, 올 하반기에 울산산에서 주관하는 안전문화상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현대미포조선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석유화학기업으로의 후발주자, 안전보건경영에서는 선두주자 태광산업(주)

1995년 5월에 석유화학 1공장의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연간 40만톤의 폴리에스테르 원료인 PTA를 생산하고 있는,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1, 2공장(이상호 공장장)이 있다. 울산에서 석유화학기업으로는 가장 늦게 설립된 회사인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공장은 안전보건경영에 있어서는 타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한다.

안전보건환경 최우선 경영실천, 안전환경시스템의 합리화 등 ISH 경영방침 아래 모든 임직원이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하나가 되었다. 이는 지난 9월에 무재해 6배 달성이라는 성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안전보건에 있어 성과를 거둔 데에는 많은 노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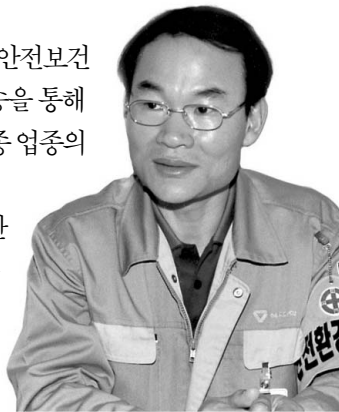
‘안전은 100%이다. 99.9%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0.1%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 일으킨다’는 확고한 마인드를 가진 이상호 공장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상호 공장장의 지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곳 실정에 맞는 안전활동을 위해 항상 연구·개발하는 자세로 현장을 누비는 강성희 팀장은 잘 짜여진 팀워크를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강성희 팀장에게 들어봤다.

안전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추진할 때 안전한 직장을 만들수 있다’는 강성희 팀장은 전사원 안전요원화, 교육훈련의 극대화, 쾌적한 회사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7년간 시행해 온 『5분안전보건뉴스』도 큰 효과를 거둔 안전보건 활동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30분에 5분 동안 사내방송을 통해 그날의 명언과 더불어, 현재 태광산업(주)의 안전현황, 동종 업종의 안전사고사례 등으로 엮어 방송한다.

그 외에는, 노사 합동 안전점검, 안전문제점 도출을 위한 간부회의, 안전보건환경퀴즈대회, 신위험예지경연대회 등이 있다. 그중 안전보건환경퀴즈대회는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지식 함양을 위해 안전문제를 시물내이션화하고,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주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또한, 예상문제를 만들어 공부케하여 안전보건에 있어



▲ 강성희 팀장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이밖에 특이한 점으로 지난 2001년에는 여사원들로 하여금 1년간 현장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관능과 예민함을 이용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태광산업(주)를 꾸미기 위한 것이며, 그때 지적사항은 선진 안전보건경영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한다.

추후 태광산업(주) 석유화학공장에 맞는 안전보건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오늘도 책상앞에 앉아 있는 강성희 팀장의 모습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안전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신위험예지훈련과 SIOP 기법을 석유화학 공장에 맞게 새롭게 재정립하여 “CO&SIOP”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태광산업(주) 석유화학공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타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CO&SIOP”이 세계로 보급되길 기원한다.

3. 재난방지 시스템

산업수도인 울산지역은 중화학 공업이 밀집한 대표적인 국가 산업 단지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다양한 업종이 가동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 석유화학 공업 단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조성되었고, 1970년 일부 기간산업이 추가로 설치 확충되어 석유화학 공업이 본격적인 일괄생산체계를 갖춘 이래 30~40여년을 경과하고 있어 재난의 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단지내 안전관리팀과 관의 안전부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유사시 합동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울산소방본부는 11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소방서 상황실을 본부 종합상황실로 통합하여 각 재난(전기, 가스, 환경 등) 신호를 119로 일원화하여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력 관리가 가능하고 울산 시민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의 접수에서 출동, 상황처리, 구조, 사후관리 등 재난상황에 따른 종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최종덕 기자)

